

2012.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2.2.29	대전MBC 대회의실	6/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5명) 명단: 신현대,여운철,안정선,김경숙,김진국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차태현 기술부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5	4		1	1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6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 건	-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방송이 선거 분위기를 만든다. 지역 언론으로서 좋은 의제를 발굴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하도록 노력해 달라 (김재영,방기봉,김영광 위원)	좋은 의견이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사회비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뉴스와 시사분석 시간을 통해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Job&Job 토크 콘서트’는 좋은 프로였다. 이런 형식은 교육,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지역 방송이 감당할 기획으로 정규편성을 권유한다. 다만 지역의 강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방청객과의 소통은 부족했다. (김재영,유치벽 위원)	좋은 평가에 감사한다. 지역 강사 발굴과 방청객과의 소통에 유념하겠다. 정규 편성은 제작비상 어려움이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면 특집편성을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내 말도 들어 주세요’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피해는 학생들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 학교>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김경옥 위원)	청소년 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버지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를 갖겠다.	편성 수용
교양	라디오 ‘특급작전-사랑방 손님과 옥희’는 시사를 해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인데 두 진행자의 목소리 연기가 부족하다. 처음부터 같은 톤으로 연기해 느낌이 안 산다. (유치벽,김영광 위원)	‘특급작전 사랑방 손님과 옥희’는 시사고발 성격의 코너로 목소리 연기지도를 보다 강화해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겠다.	편성 수용
기타	충남대의 로스쿨 1회 졸업생이 80명이다. 꿈에 그리던 법조인이 됐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로스쿨 3년의 성과를 분석,보도했으면 좋겠다. (방기봉 위원)	로스쿨의 성과를 조명하는 뉴스를 고려해 보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로컬 뉴스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과업으로 인해 뉴스의 정보량이 적다. 상당히 안타깝다. 서울과 로컬 뉴스를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다. (김영광 위원)	안타깝다. 과업중임에도 대전mbc 뉴스의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뉴스와 로컬뉴스의 균형은 사실상 어렵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천안에서 발생한 ‘채선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보도 내용 중 ‘업체에서 손해를 봤다는 표현은 시청자 입장에선 욕의 티였다. (김영광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 업체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통념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내용이 좋아졌다. 그러나 음식 소개가 많고, 기상캐스터 연결시 분할화면이 너무 작은 느낌이다. (김영광 위원)	좋은 평에 감사한다. 음식 코너에 대한 점검과 분할화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	편성 수용
보도	선거 토론시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질문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떨까? 돌발질문으로 후보자들의 대처능력을 알아보는 것도 시청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본다. (장인순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보 대 후보 질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도 수용
보도	일자리가 없다고 보도하는데 중소기업체에 선 사람이 없다고 난리다. 3D 업종에도 일할 사람이 있도록 보도에 힘써 줬으면 한다. (장인순 위원)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